

사설

종교TV는 공공채널

정부 여당이 성안중인 통합방송법이 케이블TV 종교채널을 의무전송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선택이다. 정부가 시청자를 위한 4~5개의 묶음채널을 선택하게 하는 채널타이핑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심대한 경영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교채널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종교채널이 갖는 사회공익성을 의면한 근시안적 결정이라는 것이 종교계의 판단이다.

종교채널이 케이블TV가 출범한 이래 어떤 내용을 방송해 왔는지는 시청자나 관계자가 잘 안다. 온갖 상업적 선정적 메시지가 관을 치는 현실에서 종교TV는 다른 채널과는 달리 국민의 심성을 종교적으로 순화시키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함양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IMF 경제체제 이후 경기불황의 여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경영위기 속에서도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설득하고 격려해온 점은 종교채널이 보여준 큰 성과였다. 정부가 당초 종교계에 채널을 허가해준 것도 이런 점을 종교계가 맡아달라는 취지에서 아닐 것이다.

사실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타락한 경향으로 치닫는 현대사회를 각성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은 종교채널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 역사가 짧고 전송망 등 인프라 문제로 영향력은 적을지 모르나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종교채널이다. 설사 통계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종교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다른 방송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상업적 가치기준으로 평가할 성격이 아니다. 종교계에서 설립 운영하는 모든 채널은 다른 상업방송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러한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순수하게 공익지향적인 방송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TV를 의무전송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종교가 갖는 사회공익성을 전면 부정하려는 것이 된다. 이는 도덕성을 지향해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 기회에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케이블TV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과오다. 지난 95년 케이블TV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전승방송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도 구축해놓지 않고 무리하게 업계에 방송출을 강요했다. 정부는 일단 케이블TV를 개국하면 전송망이 구축될 것이라 계산했는지 모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송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많은 업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업자본이 아닌 순수한 종교적 성원으로 참여한 종교채널의 경우는 그 허탈감이 더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채널이 의무전송에서마저 제외돼 존재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종교계의 반발은 상상외로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종교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천주교와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요원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채널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의무전송채널로 묶어주도록 건의문을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상업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정신문화 계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해 두고자 한다.

꼬리무는 종교편향·휘발

안산시 복지관 위탁공고 불교계 제외

월간지 '신앙계' 불교편향 글 실어 '물의를'

종교편향 및 불교비하 사례가 최근 빈번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초지중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 위탁공고를 내면서 용인소재 불교법인체인 공교사실을 홍보한 가운데 타지역 법인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4월24일 안산 제일장로교회를 수탁자로 결정했다. 안산불교사모연합회(회장 지혜)는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

산 불교계를 배척했다며 재공고를 통한 위탁 재심사를 요구키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규탄행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산불교사모연합회는 시의 약속만 믿고 위탁프로그램을 준비해왔지만 결과는 따돌림만 당한 꼴이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공고를 통한 위탁 재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도봉구의 한 지역유신방 송국이 1천원의 보급형으로 각 가정에 교육방송을 비롯한 국내 공중파방송과 해외 종교채널 중 기독교방송, 천주교방송, 찬송가방송만을 위성을 통해 송신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이부터 '전도'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개신교계 장로가 월간지 '신앙계' 7월호에 석가모니와 예수를 비교하며 불교를 폄하하는 글을 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김보장로는 이 잡지 기고문을 통해

'라마다경'이라는 출처불명의 경전을 근거로 "석가는 마지막 설법에 '하시야소래(何時耶蘇來) 오도무유등(吾道無油燈), 즉 언제라도 야소(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진리)는 기름이 없는 등불'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원혜, 현진)는 이에 대해 예수의 한문 표기인 '야소(耶蘇)란 단어가 18세기 이후 사용된 점을 들어, 출처도 불분명한 경전을 예로 들어 불교를 비하한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칫 불교계와 개신교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고 여론을 통해 불교 비하를 막자는 조치이다. 김재경·도핀실 기자 (jgkim@buddhopia.com)



1천억원대 문화재유조범 15명 적발

서울지검 형사5부(이동기 부장검사)는 7일 불상, 고서화등 1천여점을 위조해 이종 30여점을 판 한국고미술협회 전회장 공창호(51)등 1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로 부터 '금동미륵보살반가상'(사진 맨 오른쪽),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등 위조 미술품 1천여점과 가짜 낙관 등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품 1천여점은 진품 시가로 환산할 때 1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올해 국내의 장학금 선발공고를 내고 신청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장학혜택기간이 1년인 조계종 장학금 신청대상은 조

계종 장학금 선발이달말까지 신청접수 계종 재적승으로 정규대학 석사과정 이상자여야 하고,

중헌 제9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외 장학금 15명에 각 200~250만원, 국내 장학금 10명에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02)732-4923 김재경 기자

백령도 연등점등 비협조 태고종, 오진군 항의방문

한국불교태고종 인천총무원(원장 대은)은 14일 경기도 오진군을 항의방문해 백령도내의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책임자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중무원장 대은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은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진군을 방문해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협하려던 백령도내

심장각에서의 연등점등식이 백령면장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 총무원은 특히 연등점등식을 특정 종교행사로 규정하고 행사당일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 김성일 백령면장의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태고종이 종교편향 사제와 관련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개신교 교세가 강한 백령도의 불교탄압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성타스님 주지 사퇴 불국사 공금형량 책임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재무국장 진현스님의 공금형량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성타스님은 5일 열린 불국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후)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새 주지를 선출해 총무원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연등축제, 문화관광축제서 제외

문화부, 12개 행사만 지정 문화관광부는 7일 하동 야생차축제 등 12개 지역문화제를 2000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한라산 눈꽃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경주 전통주와 떡볶이 △영양 왕인축제 △서천 모시문화제 △여주 도자기박물관 △진도 영등축제 △남원 춘향제 △충주 무술축제 △하동 야생차축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등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신청한 연등축제는 특정종교성이 짙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문화부는 2000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를 11월경 선정할 예정이며, 3~5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95년부터 매년 지역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第2會 說戒 및 受戒大法會

교(教)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계(戒)는 부처님의 행이다. 신라대 자장율사와 진표율사는 선교의 대종장들이 입으로 하는 불교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통도사와 금산사등여러 곳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국민윤리운동의 일환으로 설계 및 수계 대법회를 매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자장율사의 출가 정신과 진표율사의 구도 정신을 본받아 설계와 수계의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 설 계: 99년 8월 6일 ~ 9일(3박4일)
 ② 설계내용: 비구, 비구니계, 사미, 사미니계, 식차마니계, 보살계, 기타사원청구
 ③ 수강자격: 관심이 있는 모든 불자
 ④ 수 계 식: 99년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⑤ 수 계 자: 각종전에 나타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375계: 수계를 원하는 일반불자(제출서류: 수계신청서1부)
 ② 보살계: 375계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제출서류: 수계신청서 1부)
 ③ 사미,사미니계: 불교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상 행자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친은사나 당해 사찰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은사람(서류: 수계신청서, 이력서, 수계증서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2부, 사진3매)
 ④ 비구,비구니계: 사미, 사미니계를 받고 3년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은법사의 추천을 받은사람 (제출서류: 수계신청서, 이력서, 승적증서본, 수계증서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2부, 사진3매)
 ⑥ 설계 및 전계사: 증 계 화상: 안덕암 대종사 (사단법인 금강선원 총재) 전계아사리: 이법홍 대종사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계아사리: 강석주 대종사 (대한불교 조계종 침보사 조실) 교수아사리: 수진 큰스님 (담양 홍화사 주지)
 ⑦ 중 사: 김성룡(연등사 주지) 이원광(수원사 주지) 김성주(성진사 주지) 고법성(법성사 주지) 석적령(안천사 주지) 신법원(보원사 주지) 한보해(세종정사 주지) 한우경(금강선원 이사장) 안경우(경북불교대학장) 심월산(대원사 주지) 전웅만(한국불교통신대학장) 김호현(한국불교법사회장) 이광세(전태종 법사) 강혜원(금강선원 이사)
 ⑧ 설계사 및 특강강사: 한정선(금강선원 이사장), 수진스님(홍화사 주지), 성륜스님(조계종 연등사 주지), 전웅만(한국불교통신대학장), 이명자(동국대학교수), 정지철(상학학수도원 원장), 안래희(청원전문대학교수)
 ⑨ 수계장소: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185 상락학수도원(0356-584-0657)
 ⑩ 접수마감: 99년 7월 20일까지
 ⑪ 수계 동참자는 서류심사후 즉시 통보함.
 ⑫ 문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4-6
 ☎ 02-969-2410,962-1666 Fax : 969-4981

한정섭 법사님과 함께하는 팔만대장경 현지 설법회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는 한국대장경 불사를 완성하고 제2차 계획으로 부처님께서 8만대장경을 설하신 현지 답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답사기간: 99년 11월 12일 ~ 11월 20일(8박9일)
 ▷ 지도법사: 한정섭대법사, 석성론 큰스님
 ▷ 참가비: 165만원 ▷ 참가인원: 약간 ▷ 접수마감: 99년 8월 31일 ▷ 참가예약금: 30만원
 ▷ 참가예약금은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참가문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962-1666 Fax 02-969-4981

일자	지역	일정
제1일 11월 12일	서울 델리	서울출발 방콕경유 델리 도착
제2일 11월 13일	비라나시 사르나트	초전법륜지 녹야원에서 5비구와 야사를 제도하고 설한 전법륜경의 내용을 설함. 사르나트 박물관과 불영당 다메르 탐방.
제3일 11월 14일	비라나시 보드가야	경지스강 일출과 황하사를 보고 부다 정각지에 있는 보드가야 대탑과 금강보, 보리수를 바라보며 회암경을 설한 곳을 참배.
제4일 11월 15일	보드가야 라지그르 나란타 파르나	성도전 6년고행한 전정각사 순례후 라지그르 도착 법회경 무량수 경을 설한 영축산, 죽림정사, 제1회 결집처 칠명굴을 보고 세계 최초의 나란타불교대학과 그외 박물관을 관람.
제5일 11월 16일	파르나 바이살리 쿠시나카르 바이루아	유마경 및 제2회결집 바이살리 도착. 아쇼카석주 및 원양봉필터등 순례. 쿠시나카르로 이동 열반경을 설한 열반당, 다비다, 사이랑 수 등을 참배하고 네팔로 감.
제6일 11월 17일	룸비니 스라바스티 룸나우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로 이동. 마야부인당, 카필라국을 참관. 아쇼카 석주 참배후 금강경을 370경 이상을 설한 사위성 기원정사로 향함
제7일 11월 18일	룸나우 상카시아 아그라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제도하고 내려오신 상카시아 참배, 아그라로 향함.
제8일 11월 19일	아그라 델리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타지마할 및 아그라성 방문. 델리 도착. 굤미나르 등 시내관광
제9일 11월 20일	델리 서울	델리출발 서울 김포공항 도착

제49차 하계계기 교육을 99.8.6~8.9(3박4일간) 까지 중앙교육원(상학학수도원)에서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